



# 精神醫學와 倫理

가톨릭醫大 神經精神科學教室  
教授 金 鍾 殷

## 1) 처음에 :

精神醫學의 第一義的 目的은 勿論 여러 精神疾患의 豫防과 治療에 있다. 오늘날의 精神醫學, 即 科學으로서의 精神醫學은 勿論 一般醫科學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18世紀, 獨逸을 中心으로 하여 擡頭된 이른바 <科學文明時機>에 基礎를 두었고, 그런 뜻에서 어디까지나 醫科學의 分科로서의 精神醫學임은 모두가 是認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背景을 지닌 本來의 精神醫學은 20世紀에 접어들면서 學問의 追究方法上, 一般醫科學의 그 것과는 角度를 달리하였거나, 새길로 一時 빠져 나가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점도 또한, 否認할 수 없다.

이른바 深層心理學의 創設과, 이의 導入 乃至는 迎合이 곧 方法論의 變化를 이르기는데 큰 몫을 찾아하였다고 보아진다. 深層心理學으로부터 發展된 精神分析理論은 비단 精神疾患, 특히 노이로제의 理解를 돕는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超現實主義(Surrealism)의 이름아래, 哲學, 文學, 기타 여러 藝術과 創作分野에 影響을 끼친 것도 事實이며, 이러한 發展過程은 또 모름지기 精神醫學은 다른 어떠한 醫學分野보다 哲學의 概念으로서의 醫科學을 보는 눈을 뜨게 만든 것도 事實이다.

## 2) 人格改善과 倫理

精神障礙란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人格變化(Change of personality), 상태 또는 人格瓦解(Disorganization of personality) 상태라 말할 수 있다. 가벼운 노이로제는 이런 뜻에서 가벼운 人格瓦解狀態이며, 또 精神分裂症과 같은 精神異

常狀態도 그나름대로의 심한 人格瓦解狀態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問題는 이른바 Personality(人格, 人性)의 非普遍性이 야기시키는 倫理를 비롯한 몇가지 問題點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抽象的으로 Personality라는 말로 한 人間이지니고 있는 온갖 人性을 包括, 表現하고 있으나, 事實 個人을 中心으로하여 考慮할 때, 個個人의 Personality는 각기 다르므로 이러한 점은 精神疾患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治療의 方法, 目標設定에 적지 아니한 混線을 이르기 쉬우며, 또 混線의 結果로서의 倫理的 問題點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 甲이란 환자와 乙이란 患者가 모두 精神分裂症을 앓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病名이 같으므로 나타나는 病勢도 똑 같으나하면 決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본 Personality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고 보면 治療目標도 똑같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 問題되는 點은 그러면 과연 個個人의 人性을 中心으로하여 治療의 目標을 어디에, 또 어디까지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問題가 생긴다.

이점에 對한 答으로서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病前 Personality로 挽回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같은 病을 앓기에 治療의 目標을 꼭 같은 데 둔으로서 結果的으로 治療後의 같은 Personality를 期待하여서는 안된다는 倫理的命題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勿論 오늘날의 精神醫學은 그의 能力으로서 人間의 基本 Personality를 變更할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問題를 一旦 倫理的立場에서 볼 때, 醫師가 人間의 基本性格의 變化마저

試圖하는 것이 許容되느냐는 문제는 그것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試圖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質的으로 다른 問題인 것이다. 共產主義國家에서 흔히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 바 “洗腦” 工作, 또는 反體制知性人들에 對한 強制的 精神病棟收容따위가 自由世界로 부터 심각한 批判을 받는 理由도 따지고 보면 醫學的方法에 의한 人格改革의 不當성과 깊이 關與되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이렇고 보면 醫科學으로서 精神醫學은 治療目的에 있어서도 多分히 症狀消滅의 영역으로 可能的 線을 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때, 精神分裂症에 對한 治療方法으로 視床(Thalamus)와 前頭葉사이를 連結하는 白質(White matter)를 차단하는, 이른바, 腦葉切開(Lobotomy)術이 流行된 바 있다. 事實 이 術式을 創案한 Moniz는 1935年度 노벨 醫學賞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手術을 받은 大部分의 患者는 症狀消滅까지는 좋으나 나머지 餘生全般에 걸쳐 심각한 人格荒廢現象을 이르게 심각한 倫理的 論爭의 對象이 되고 말았다. 近代 獨逸精神醫學界의 碩學인 Kolle 教授같은 사람의 意見으로서서는 이는 巴야호르 醫學의 謗을 쓴 僞醫學的方法으로서 않은 人間을 새로운 動物로 만드는 可 恐하고 可憎스러운 術式이라고 酷評한 事實만 보 더라도 醫學은 그 어떤 目的으로서라도 한 人間の 基本人格의 變革을 갖어오게 하여서는 안됨을 強調한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아름든 오늘날에 와서는 腦葉切開는 世界어디에서도 實施되고 있지 않는 것이 事實이다.

世界 2次大戰後 美國을 中心으로하여 요란하게 流行되어온 프로이드(Freud)의 精神分析的인 精神療法도 지금에 와서는 相當히 衰退하여 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理由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人格의 修正(Modification of personality)이 可能하다는 大前提가 結局失敗를 본 데도 그 原因의 一部가 있다고 보아진다.

이와 비슷한 例는 倫理的觀點에서 볼때, 醫學의 各分野에서 數없이 많다. 그러면, 이와같은 非, 내지는 僞倫理的인 여러 試圖가 왜 일어나는 가 하는 點을 한번 考慮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試圖가 人間の 本性의 하나로서

의 非倫理性에 비롯된 것이라고는 決코 볼 수 없다. 그보다는 現代人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 이른바 “科學”의 學問性에 對한 認識이 더 큰 比重을 찾아 한다고 보고 싶다. 過去 200년동안 우리 人類의 思考에 여러가지로 엄청난 影響을 끼친 것이 事實인 <科學>에 對한 認識自體에 있다고 보아지는 <科學的認識論>아닌 科學에 對한 認識自體에 反省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진다.

科學自體에 對한 認識에 無理나 모순이 있다는 것은 또, 어쩌면, 科學의 有限性을 굳이 排除하고자 하는 人間特有의 所願成就의 所産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科學의 有限性>에 對한 認知는 또 <人知의 有限性>에 對한 認知와 同質의인 것이라고도 보아진다.

科學을 턱놀로지(Technology) 중심으로 생각할 때, 人類歷史는 그 어느때고 科學을 갖이고 있었다. 그러나 古代나 中世紀까지의 科學에는 건전한 母體가 있었던 것이 事實이다. 바로 哲學이 그 것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科學이란 어디까지나 <哲學의 子息으로서의 科學> 以上の 것이 못되므로서 母體로서의 哲學은 언제나 <科學의 分數, 限界>따위를 잘 일깨워 주었다고도 말할수 있다. 그러나 物質文明이란 代名詞로까지 불리우는 現代文明은 요새 流行하는 經濟用語인 <供給과 需要> 原則에 따라 哲學의 位置는 위축을 免치 못하여 現代에 이르러서의 哲學의 位置는 꺼꾸로 <科學의 子息으로서의 哲學>의 모습으로 轉落되므로서 主客이 전도된 感이 깊다.

母體를 잃은 孤獨한 科學의 한 分科로서의 醫學도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重要問題를 안고 있음이 事實이다.

倫理面에서 볼 때, 오늘날의 醫學이 갖이고 있는 最大의 고민은 스스로의 限界를 모르는데서 오는 것잡을 수 없는 混亂現象을 들수 있다.

쉽게 말하여 오늘날의 醫學徒는 都大體어디까지가 醫學이냐를 分別못하는 느낌이 깊다. 예를 들어 여러 臟器移植術이나 試驗管속에서의 受胎實驗따위가 과연 醫學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哲學을 爲始한 그 어느 分野에서도 答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疑問이 提示

는 큰 원인의 하나는 臟器移植이나 試驗管內의 受胎實驗이 一部 學者들에 의하여 꾸준히 展開되어가지만, 그만큼 人間의 知性은 또 이러한 實驗의 許用性에 關한 苦惱를 同時에 겪고 있다는 事實단으로도 充分히 說明된다. 萬若 앞서말한 臟器移植이나 試驗管內의 受胎實驗따위가 醫學의 범주밖의 일이라면 이것을 醫學인양 생각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結論이 된다.

이와 비슷한 問題가 精神醫學에 있어서의 <精神>의 概念에 關하여서도 存在한다.

科學으로서의 醫學, 그리고 醫學의 한 分科로서의 精神醫學이란 點을 考慮할 때, <精神>이란 낱말이 우리 人類가 傳統的으로 使用하여 오든 幅넓은 뜻에서의 <精神>이란 말과 同一한 것인가에 對하여서도 檢討하여야할 必要가 생긴다고 본다.

純粹한 醫學的인 뜻에서의 精神이란 곧 腦의 全般的인 機能을 念頭에 두고 考慮하여야 한다. 그것은 身體醫學의 다른 分野에서 생각하는 人體의 여러 器關(organ)에 對한 概念과 틀릴 것이 없어야 될 것이다. 便宜上 身體器關과 區分하여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腦의 여러 機能에 關한 醫學的인 把握, 그 自體가 곧 이른 바 <精神>하고 맞먹는다는 것은 어딘지 飛躍的인 思考方式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길게 한다. 그런 뜻에서 볼 때, 醫學의 對象으로서의 <精神>이란 어떤 뜻에서든간에 <마음>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서 精神醫學의 對象은 腦의 科學的인 究明에 국한하여야 하고 따라서 精神障擧도 腦의 機能의 一時的 變調라는 概念下에서 取扱하는 것이 바란직한 일로 생각된다.

그렇고보면 참다운 精神이란 마음과 몸 위에

있는 次元높은 것으로서 人知의 窺은 解釋이 許容되지 않는 어떤 統整機能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이게 된다. 이러한 概念이 우리에게 보다 明瞭하게 理解될 때, 醫學으로서의 精神醫學은 哲學이나 神學, 其他 人점 人文科學과의 不必要한 差이 없어지고 보다 幅넓은 對話가 可能할 것이라고 믿어진다.

南美 아마존江邊에 가면 人知를 超越한 재미(蟻) 떼의 일정한 活動이 우리에게 偉大한 哲學的 教訓을 던져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數萬마리의 재미(蟻)떼가 무리를 이루어 기어 가다가는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한 무리는 나무에 올라가서는 큰 나무잎을 呑心하여 뜯어낸다고 한다. 커다란 나무잎사귀는 끝내 바람을 타고 동동 떨어진다고 하는데, 막상 떨어진 곳은 영낙없이 地上의 재미(蟻)떼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또, 같은 地域에서는 뱀(蛇)무리가 急速히 나무에 기어올라가면 틀림없이 얼마 안있다가 소낙비가 온다는 것이다. 우리 人間은 관찰의 결과 그러한 現象을 인정할수는 있다. 그러나 都大體 어떠한 이유와 經過로 그것이 可能的가에 對하여서는 아무도 모른 것이 事實이다. 人知의 有限性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分明히 限界가 있는데도 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여러가지를 試圖한다는 것은 어찌면 精神分析에서 일컫은 所願成就란 人間의 心理機轉의 所致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찌면 人間의 攻擊本能, 아니면 破壞本能의 所致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와같은 心理現象은 理解은 할수 있지만 그 以上の 價値를 지닌 것이라고는 決코 믿기 어려운 것이다.

